

5월10일(월)/사도행전21:1~6

제목: 크리스찬의 여행관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마친 뒤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 그는 밀레도를 출발하여 고스와 로드와 바다라를 거쳐 베니게의 두로에 도착하여서 일주일 지낸 뒤 사람들과 뜨거운 이별의 정을 나누고 다음 행선지로 떠났다(1~6절). 바울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는 대목에 주목해보자(4절). 그는 낯선 지역에도 도착하자마자 기독교인들을 찾으려고 애썼다. 여기서 ‘찾아’ 라는 말은 수색하다는 뜻이다. 그는 낯선 지역에도 도착하자마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믿음의 동지들을 수색하였다. 복음이 어떻게 두로까지 전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두로에서 반갑게도 동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바울은 이 낯선 도시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경치나 예술품 등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교두보를 마련할 동지들이 있는지 찾아다녔다. 이것이 바울이다. 그는 여행 중에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가졌다. 오늘날 우리도 낯선 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 그곳의 경치와 문화 예술에만 관심을 가질 것 아니라 그 지역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크리스찬은 여행할 때도 일반인과 달라야 한다. 크리스찬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 지어야 한다.

5월11일(화)/사도행전21:7~14

제목: 사람의 사랑보다 예수에 대한 충성이 먼저입니다.

바울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서 하루하루의 휴식을 취한 뒤 가이사라에 도착했고 빌립의 집에서 간 머물렀다(7~8절). 빌립의 집에서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여 투옥될 것을 예언하였다(11절). 아가보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고한 사람은 ‘우리’ (12절), 즉 본서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한 일반사람들이다. 성령께서는 아가보를 통하여 결박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비록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주를 위한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였다(13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당부한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사랑의 동기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먼저였다. 바울은 그들이 베푸는 호의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충성으로 그들의 권고를 물리쳤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만류하는 경우가 있다. “피곤해 보이니 좀 쉬라” 고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사랑의 권고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다. 크리스찬은 사람들의 사랑 보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더 중요하다.

5월12일(수)/사도행전21:15~16

제목: 거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빌립의 집에 여러날을 지낸 후 드디어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15절). 여기서 “여장을 꾸리다” 는 말은 “말의 안장을 꾸리다” 는 뜻이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이기 때문에 걸어가기는 무리이므로 아마 그가 말을 타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의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갔다(16절). 이 몇몇의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기꺼이 영접할 사람이 없을 고려하여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나손에게로 바울의 일행을 데려갔다(16절).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은 나손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 나손의 집에서 유하게 될 것이다.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의 일행이 유숙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생활 형편이 괜찮았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그가 발을 내 디디는 곳마다 그가 쉼을 얻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휴식처를 예비해놓으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무모하게 고생시키시지는 않으신다. 이것은 오늘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해당된다.

5월13일(목)/사도행전21:17~26

제목: 바울도 실수하였다.

바울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마치자마자 장로들은 그에게 제안을 하였다(18~20절). 그 제안은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율법을 신봉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이었다(20절). 이들은 바울을 율법폐지론자로 알고 바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21절). 그래서 예루살렘 장로들은 바울이 의식과 관례를 준수함으로 이들의 비난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였다. 장로들은 바울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율법에 따라 나실린 서원을 한 네 사람과 함께 서원을 하고 결례를 행하라는 것과 결례에 들어가는 경비를 부담하라는 것이었다(23~24절) 이 때 바울은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고하였다(26절). 바울은 자신의 확신을 굽히고 그 제안에 동의했다. 물론 이것은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 이것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렬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동족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슬프게 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위배하면서까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5월14일(금)/사도행전21:27~36

제목: 지금 타협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울이 의식과 결례 마치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하여 폭도로 변하게 하였다(27~29절). 폭도들에 의해서 그
는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 몰매를 맞으며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치안의 책임자인 천부장이
달려와 바울을 체포함으로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
다(30~34절). 바울이 장로들의 제안에 동의함으로 생긴 결과는
무엇인가? 폭동을 유발시키고 말았다. 바울이 자기의 신념을 굽
히면서까지 장로들의 제안에 동의하여 자기 동족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후에 가서 진리를 다시 세울
기회를 얻겠다는 생각에서 현재 그 진리를 희생 시킨다면 그 기
회는 다시 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당장 진리를 희생시키
는 것이 후에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오
늘 여기서 세상과 타협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후에 그것을 만회
할 길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 후에 그것으로 끝이지 후에 전도할 기회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